

무역거래에서 송금(T/T)방식의 결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우정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대학원생

조혁수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T/T Payment Risk in International Trade

Woo-Jung Han^a, Hyuk-Soo Cho^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Received 19 November 2019, Revised 10 December 2019, Accepted 12 December 2019

Abstract

L/C(Letter of Credit) is a common payment term designed to prevent credit risk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most companies prefer T/T (Telegraphic Transfer) payment due to its time and cost efficiency. According to related statistics, more than 70% of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are based on T/T rather than other payment terms. The time required from the export negotiation to the completion of the export transaction and coll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is very long. In this process, disputes related to settlement are continuous, so caution should be exercised. Therefore, whether or not the export payment is recovered in a timely manner is the core issue of trade transactions for expor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that cause delayed payments during settlement by the remittance (T/T) method, which can lead to settlement risk, in order to investigate those factors which can lead to delays in payments and increased risk as well as to determine ways to prevent such factors in advance. According to empirical findings, trading experience, transaction duration, and contract contents can be important determinants in terms of payment delays. Industry uniqueness and market uncertainty were found to be in opposition to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rading companies to reduce their payment risk.

Keywords: T/T, Payment Term, Payment Delay, Payment Risk, International Trade

JEL Classifications: F100, F23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8070344)

^a First Author, E-mail: huj0311@gmail.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cho@cnu.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수출대금 회수에 있어 결제 방법으로 과거 신용장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이하 T/T)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각종 수수료 비용과,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야하기에 전문 인력을 할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그로 인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신용장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업체 간 신뢰 관계가 높아지고 장기공급 계약에 의한 수출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결제조건 중 가장 간편하고 비교적 빠른 T/T방식의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T/T방식에 의한 결제는 빠르고 간편한 만큼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 T/T방식에 의한 결제는 단순히 buyer가 seller에게 수입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 신용장방식과 유사하지만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수출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된다. 국제무역에서 T/T방식의 계약 후 사전송금으로 진행할 경우 수출기업은 위험이 없지만 수입기업에게는 제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사후송금의 경우 반대의 상황이 되는데 수입기업은 제품 확인 후 결제하면 되기에 위험이 없으나 수출기업은 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 하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대금 결제시기에 따른 비율을 협의한다 해도 100% 사전, 사후송금으로 진행한 거래보다 위험의 정도가 줄어들 뿐 그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수출기업은 결제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기관에 중재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결제가 지연될 경우 결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T/T방식에 의한 결제 중 어떤 요인이 결제지연을 유발하는지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T/T방식의 결제위험성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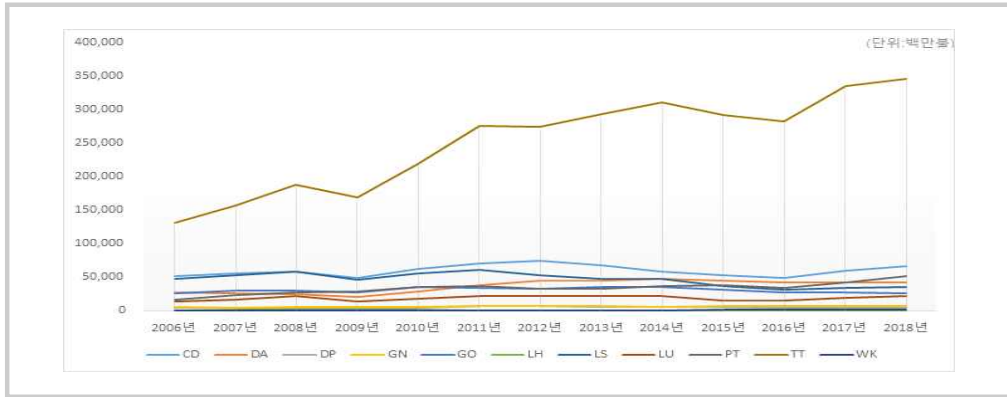
II.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변화

국제거래에서 수출기업에게 가장 안전한 결제방법이 신용장 결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계에서는 주로 신용장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의 대금결제 방법은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연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Youngjoon, 2016). <Fig. 1>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자료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9년 466,384백만 달러로 모든 지표가 하락하게 되었지만, 2010년 466,384백만 달러로 28%상승하며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년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수출이 주춤했던 몇 해를 감안 하더라도 T/T방식에 의한 결제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1>을 보면 T/T방식에 의한 결제비중은 2006년 40%에 불과했지만 6년 후 2012년에는 50%를 넘겼고 2018년도에는 57%이상의 비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LS(일람출금 L/C), LU(기한부 L/C)와 같은 신용장방식과 D/A(인수인도조건), D/P(지급인도조건)와 같은 추심방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없이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 3년간 한자리수를 유지하면서 평균 6%대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나 철광석, 목재 등 업종 특성상 신용장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에 기인하였다고 보여 진다(Kim Sungsoo, 2016). CD(COD 상품인도 결제방식, CAD 서류인도방식) 방식의 비율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별 선호도의 변화에 대해 혹자는 과거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신용장거래의 장점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비교적 낮은 T/T방식의 결제방법을 선호하게

Fig. 1. Total Export by Payment Type



Sources: Rewriting Data of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Table 1. Percentage of Export by Payment Type

	Year 2006	Year 2012	Year 2018
T/T	40%	50%	57%
COD, CAD	16%	14%	11%
D/A	8%	8%	7%
D/P	2%	1%	1%
LS	15%	10%	6%
LU	4%	4%	4%
Others	15%	1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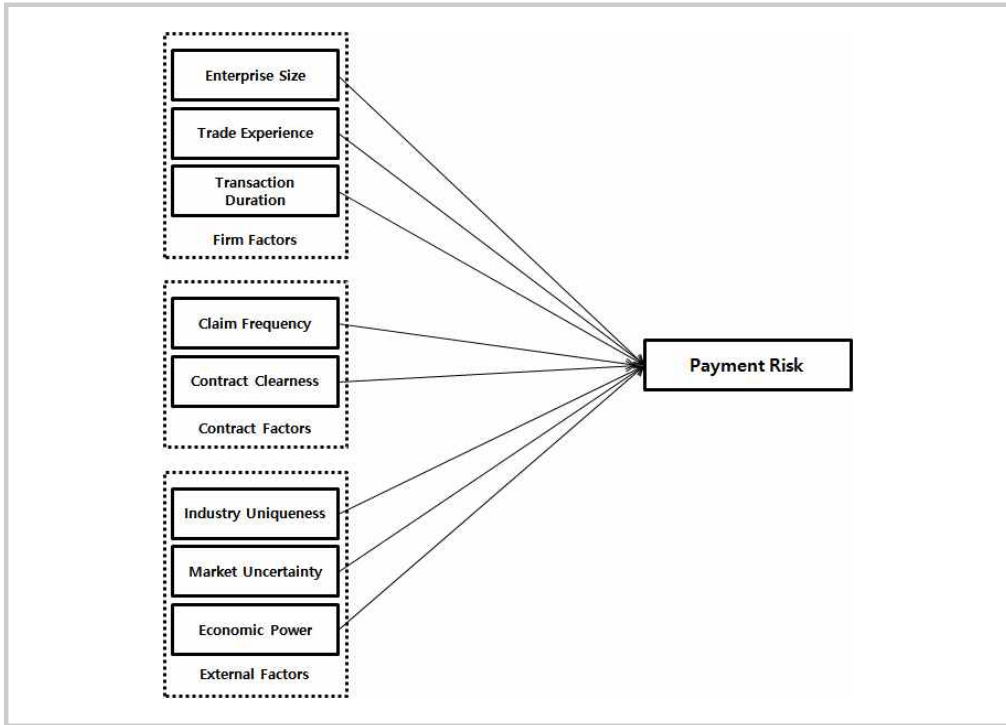
Sources: Rewriting Data of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되었다거나 혹은 무역의 개념 확장으로 인해 거래방식에 변화를 주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출업자만의 선택이 아니고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은행의 신용악화로 인해 소액거래 시 신용장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데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ong Kyungsook, 2015). 이렇듯 무역거래에서는 수출기업의 안전한 수출대금 회수와, 수입기업의 안전한 물품 회수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다양한 결제방식이 이용되어 왔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그림과 같이 기업요인과 계약요인 그리고 외부요인으로 그룹화 한 후 각각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결제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독립변수를 2~3가지로 설정 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이론모형이며, 기업, 계약, 외부환경 관련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결제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영하고 있다.

Fig. 2. Research Model



1. 기업요인

1) 기업규모

기업의 위험관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매출규모, 수입비중, 거래국가의 다양성 등의 요인과 해당기업의 위험관리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위험관리 중 결제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요인들을 거래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특성, 계약 특성, 외부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해당기업과의 결제리스크와 연계하여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Ryu Wonwoo(1997)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출위험, 비용의 예측, 관리방법에 대한 인력과 지식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는 대가인 편익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yu Wonwoo, 1997).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수준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결제지연 등 결제 관련 위험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외거래처의 다양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양화된 해외거래처는 해당기업의 위험관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Lee Ounyeong and Steve Ha(2012) 연구에 의하면 해외거래처가 다양할수록 해외시장 관련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위험관리에 대한 기업 내 체계성은 향상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해외거래처의 다양성 반드시 결제위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Bae Sangphil(2012) 연구에 의하면 수출기업은 규모에 따라 수출보험 활용 수준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채권 추심제도

의 활용방법 다양성도 기업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실적을 갖는 기업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대금결제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여 외상매출 관리에 노력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Bae Sangphil, 2012).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래하는 상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기업과의 결제 관련 위험성은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래하는 상대기업의 기업규모와 결제지연 등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1: 거래기업의 기업규모와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2) 무역경험

제품을 수출하고 결제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무역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부서 간 협력수준이 낮을 것이다. 또한 무역 관련 전문 인력 배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낮아진다. 결국 무역 관련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

Joo Sehwan(2016)에 의하면 수출규모, 수출비중, 수출경험, 무역클레임의 경험들이 증가할수록 사전에 해당분야 관련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역경험이 많은 기업일수록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Cho Younghyun(2011) 연구에서는 파트너 간 관계 수준과 신뢰 수준 사이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무역경험은 거래기업과의 협력수준을 강화하며, 협력수준이 강화될수록 관련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 있다. 이는 해당기업의 수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 Younghyun, 2011).

Byun Sungmin(2017)는 FTA를 이용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무역실무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무

역계약, 운송, 통관, 결제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통계자료, 지원시스템, 교육 등에 의해 낮아질 수 있으며, 무역 관련 경험 수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Byun Sungmin, 2017).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거래하는 상대기업의 무역경험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 1-2: 거래기업의 무역경험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3) 거래지속 기간

앞서 논의된 기업규모, 무역경험과 함께 해당기업 간 거래지속 기간도 결제지연으로 대변되는 결제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 Sungsoo(2016)에 의하면 기업 신용도, 거래 신뢰도, 거래기간 지속성 등은 해당기업과의 결제방식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oi Jungho and Lee Jaehyun(2002)에 의하면 수출거래기간이 짧을수록 해당기업 관련 수출위험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수출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내외 모든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의 신용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기업과 수출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수출 기업 간의 수출 영업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된다면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거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위험의 발생빈도는 낮게 인식되어 보험 활용률이 낮게 나타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의 무역 경험으로 서로간의 신뢰도가 쌓인 것을 알 수 있다.

Kim Hyungyu and Jung Seonmi(2017)는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제고가 기업 신뢰성과 호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간 신뢰도가 높거나 제품의 신뢰도가 충분하다면, 해당기업과의 거래는 장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친밀도가 높아지면, 다양한 요구에도 비교적 신속하게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

적인 환경에서는 거래당사자 간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선결제의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기업과의 결제지연 등 결제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기업과의 거래지속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3: 거래기업과의 거래지속기간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정(+)의 관계가 있다.

2. 계약요인

1) 클레임 경험

Lee Heesook(2011)에서는 수출기업의 대내외 환경요인과 수출대금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연구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무역클레임 경험은 대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리스크 통제기법과 리스크 재무기법을 활용해서 무역클레임 비율을 낮출 수 있다(Lee Heesook, 2011).

Dong Teng(2016)은 한중 무역에서 기업 사이의 무역클레임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클레임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품질불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엄격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며, 계약서 상 정확한 권리 및 의무 명시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클레임 통지 및 중재조항 삽입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계약체결은 매우 중요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역계약에서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클레임이 발생될 수도 있다. 클레임의 발생빈도는 해당기업과의 신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클레임의 발생빈도 및 수준은 해당기업과의 결제 관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 경험 수준과 결제리스크 간 비례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1: 거래기업과의 클레임 관련 경험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2) 계약내용의 명확성

Park Sehun(2008)에 의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 수준이 낮은 순서는 T/T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이다. Lee Ounyeong and Steve Ha(2012)에 의하면 후불송금 조건에서 거래단위 금액의 크기에 따라 리스크 노출도가 달라지며, 거래금액이 작을수록 대금미회수에 따른 손실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 Koo Jongsoon(1990)은 무역거래 시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이 부담하게 될 손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Yao Siyuan(2015)은 사례분석을 통해 한중기업 간 무역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결제조건인 T/T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연구에 의하면 무역대금 결제 관련 복수의 결제방법과 결제시기를 활용함으로써 결제 관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결제 관련 정확한 권리 및 의무 설정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혼합결제 방법과 관련 명확한 계약서 내용이 대금결제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Yao Siyuan, 2015).

무역계약시 계약당사자간의 입장을 반영해 많은 논의 끝에 계약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 내용의 해석에 따른 입장 차이는 분명 있을 것이다. 논의 시점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업계 관례대로 처리해오던 일들을 결제 시점에 해석을 달리하고 예기치 못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의 시비(是非)를 가리는 동안 대금결제는 지연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지연된 결제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원활히 합의하게 되도록 환율변화 등의 이유로 또다시 결제시기를 논하게 된다거나 하는 또 다른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결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결제조건 계약내용의 명확성은 결제리스크를 대비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2: 거래기업과의 계약내용 명확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3. 외부요인

1) 산업의 특수성

지금까지 결제지연으로 대변되는 결제리스크 결정요인으로 거래기업 및 계약 관련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거래기업이 위치한 국가 및 산업 특성 등 외부적인 요인도 결제리스크 관련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ong Kyungsook(2015)에 의하면 전자, 반도체, IT산업은 신용장 거래 비중이 낮고, 원유 등 원자재의 경우 신용장 비중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용장 거래 비중이 낮은 산업의 경우 T/T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T/T방식은 소액결제의 경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사전에 신용위험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도체나 IT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T/T방식을 통해 본사-해외지사 간 결제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Song Kyungsook, 2015).

무역거래에서 거래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정부규제를 포함한 정치적인 상황과 해당산업을 포함하는 경제적인 환경은 중요한 고려요인에 포함된다(Kim Inkyung, 2005).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산업에서는 결제 관련 표준화 수준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결제 관련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표준화 수준이 낮은 산업의 경우 결제방식 포함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험수준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산업특성이나 산업의 경쟁수준, 제품 주기 등 그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제까지의 기간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특수

하다면 그 만큼 성숙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래조건과 거래내용이 아직 표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거래기업이 속한 산업이 특수할수록 결제지연으로 인한 결제리스크도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1: 거래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수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2) 시장의 불확실성

Kim Junguei(2018)에 의하면 기업들의 결제방식 결정에는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업들의 거래비용 축소와 시간 절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가 반영되어 T/T, 추심방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신용장 거래의 경우 여러 은행이 개입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Ha Sungheun, Jeong Yoonsay and Park Hyunhee(2016)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 기업 환경 악화, 경쟁 심화 등 시장 위협이 지속되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거래하는 기업의 국가에서 환율변동 심화, 경제성장 둔화 등 시장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는 결제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2: 거래기업이 속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3) 국가 경제력

Song Kyungsook(2015)에 의하면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제방법도 변경될 수 있다. 지

Table 2. Variable and Operational Definition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Enterprise Size	Sales scale, Import ratio, Import diversity	Bae Sangpil(2012), Yoo Wonwoo(1997), Shin Gunjae(2005),
Trade Experience	Business duration, Cooperation among departments, Professionalism	Joo Sehwan(2016), Cho Yonghyun(2011), Byun Sungmin(2017)
Transaction Duration	Enterprise reliability, Product reliability, Friendship	Choi Jeongho and Lee Jehyun(2002), Kim Seungsoo(2016), Kim Hyunkyu and Jung Sunmi(2017)
Claim Frequency	Quality claim, Shipping claim, Quantity claim	Lee Heesook(2011), Choi Jeongho and Lee Jehyun(2002)
Contract Clearness	Cost burden, Payment amount, Payment currency, Payment period	Park Sehoon(2008), Lee Woonyoung and Ha Inhyuk(2012), Koo Jongsoon(1990), Jung Jinup(2005)
Industry Uniqueness	Product cycle,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dustrial competition	Song Kyungsook(2015), Kim Seungsoo(2016), Barney(1991)
Uncertainty of the Market	Exchange rate fluctuation, Financial expenses, Economic situation	Kim Heekook(2000), Kim Jungui(2018), Choi Yongmin(2001)
Economic Power	National competitiveness, National Corruption Index, Political stability	Song Kyungsook(2015), Heo Eunsook(2002)
Payment Risk	Experience regarding payment delay, Experience extending payment due	Kim Sunghoon(2002), Heo Eunsook(2002), Yeo Maehye(2015), Lee Heesook(2011)

역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럽이나 북미지역이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보다 T/T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과의 결제방식은 신용장 비중이 낮는데 비해 개도국과의 결제방식은 신용장 방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거래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T/T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Heu Weunsuk(2002)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연구에 의하면 정치

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나 외환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위치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신용장 이용이 합리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거래기업 국가 경제력은 국가경쟁력, 국가 부패지수, 정치적 안정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력은 개인의 경우 재산의 정도를, 국가나 기업의 경우 생산력이나 자본축적의 정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 경제력은 해당국가에 위치한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채구매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Table 3. Result of Reliability

Factor	Cronbach's Alpha	Number of Items
Enterprise Size	0.896	3
Trade Experience	0.877	3
Transaction Duration	0.856	3
Claim Frequency	0.879	3
Contract Clearness	0.687	2
Industry Uniqueness	0.613	2
Uncertainty of the Market	0.786	2
Economic Power	0.756	2
Payment Risk	0.905	6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3: 거래기업이 위치한 국가 경제력 수준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174부이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변수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2>와 같다.

IV.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거래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법인 T/T방식에서 거래기업의 특성, 계약요인, 외부요인들이 결제지연 등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겸하고 있거나, 전담하고 있는 무역 담당자를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기업요인과 계약요인, 외부요인의 특성에 따라 질문을 만들고 각각의 요인들이 실제 결제지연으로 인한 리스크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했다. 설문기간은 2019년 5월에서 6월이었으며, 배포된 설문지는 총 600부였다. 하지만 설문 기간에 회수한 설문지 190부이며, 이중 최종 분석에 유효하게 사용된 설문지는 총

2.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해당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전 측정항목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하였을 때 특정 대상에 관계 없이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 일관성 있는지 판단하는 개념이다(Joo Sehwan, 2016). 반복법, 재검사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신뢰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알파계수법을 활용하였다. 알파계수법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0.7보다 크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에 가깝게 커질수록 신뢰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요인별 신뢰도는 <Table 3>의 신뢰성 분석과 같이 개별 요인 당 측정된 Cronbach's

Table 4. Result of Bartlett' Test & KMO

Kaiser-Meyer-Olkin Measures		0.866
	Chi-Square	2869.83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Degree of Freedom	325
	Statistical Significance	0.000

Table 5. Result of Validity¹⁾

Variable	X1	X2	X3	X4	X5	X6	X7	X8	Y1	
Factor Loading	Item 1	0.859	0.784	0.856	0.866	0.76	0.658	0.728	0.794	0.793
	Item 2	0.887	0.867	0.874	0.89	0.69	0.671	0.89	0.766	0.884
	Item 3	0.839	0.871	0.724	0.77					0.816
Eigen value	8.303	3.993	2.329	1.581	1.206	1.054	0.889	0.850	0.621	
Cronbach's Alpha	0.896	0.877	0.856	0.879	0.687	0.613	0.786	0.756	0.905	
AVE	0.717	0.678	0.675	0.660	0.485	0.446	0.738	0.765	0.525	

Alpha 값이 기업규모는 0.896, 무역경험은 0.877, 거래지속기간은 0.856, 클레임은 경험 0.879, 계약내용 명확성 0.687, 산업의 특수성 0.613, 시장의 불확실성 0.786, 거래처 경제력 0.756, 결제리스크는 0.905로 각각의 항목들 모두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이전에 신뢰성 분석과 함께 타당성(validity) 분석도 실시하였다. 타당성이란 측정항목이 얼마나 정확하게 변수에 수렴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하여 잠재요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Ren et al., 2018). 수렴타당성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Zhou Xiaofeng and Cho Hyuksoo, 2017). 이와 함께, 검정통계량(Kaiser-Meyer-Olkin)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KMO의 값의 기준은 0.5 이상이고, 변수들의 상관행렬 적합도를 반영하는 Bartlett 값에 대한 유의확률의 기

준은 0.05 이하일 때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Table 4>를 살펴보면 KMO측도는 0.86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근사 카이제곱에 대한 값은 2869.834이고, 유의수준의 값은 0.000으로 확인된다. 이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이를 통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된 자료에 의한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은 여러 가지의 변수를 몇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그룹화 할 수 있고, 이것이 측정 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나타낼 때,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개념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Cheon Heeyoung, 2017).

요인행렬의 회전 방법은 직각회전(varimax)을 이용하였고, 보통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1) X1(Enterprise Size), X2(Trade Experience), X3(Transaction Duration), X4(Claim Frequency), X5(Contract Clearness), X6(Industry Uniqueness), X7(Market Uncertainty), X8(Economic Power), Y1(Payment Risk)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VE Square Root²⁾

Variable	X1	X2	X3	X4	X5	X6	X7	X8	Y1
X1	0.847***								
X2	0.827***	0.823***							
X3	0.706***	0.765***	0.822***						
X4	0.237***	0.153*	0.162*	0.813***					
X5	0.259***	0.094	0.025	0.864***	0.696***				
X6	-0.576***	-0.526***	-0.428***	-0.155*	-0.201*	0.667***			
X7	0.151*	0.069	0.001	0.486***	0.727***	-0.015	0.859***		
X8	0.359***	0.374***	0.228**	-0.124*	-0.125	-0.226**	-0.015	0.765***	
Y1	0.503***	-0.543***	-0.487***	0.374	0.363***	-0.548***	0.054*	0.170*	0.725***

Table 7.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³⁾

Hypothesis	Proposed Relationship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1-1	x1 → y1	-0.063
1-2	x2 → y1	-0.282***
1-3	x3 → y1	-0.215***
2-1	x4 → y1	0.005
2-2	x5 → y1	-0.811***
3-1	x6 → y1	-0.302
3-2	x7 → y1	-0.340***
3-3	x8 → y1	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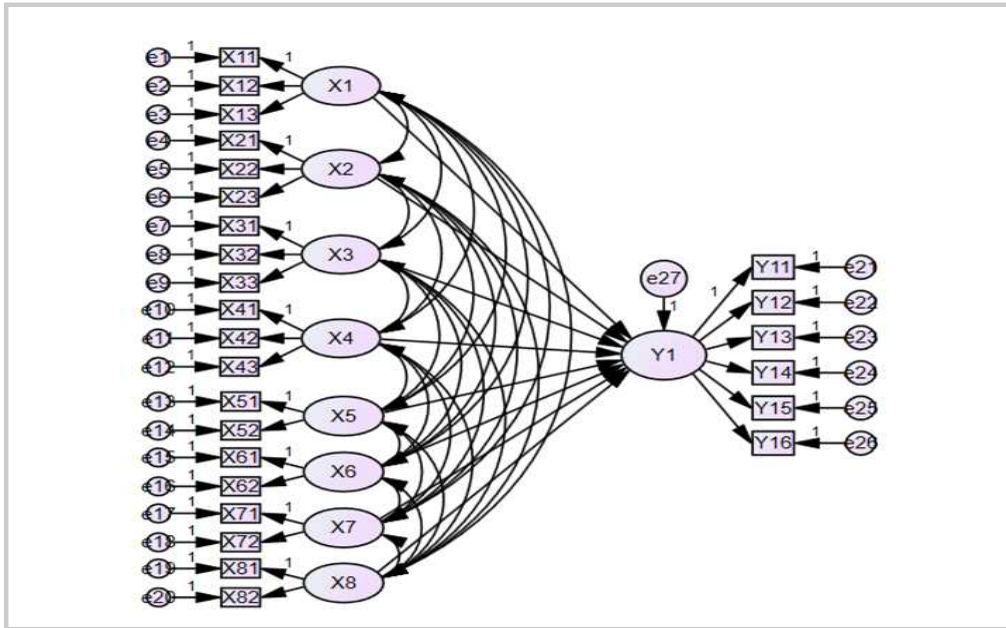
Goodness Fit Tests Of Model	Recommended Value	Fitness Index
CMIN/DF	> 2.0	1.749
IFI	< 0.9	0.929
TLI	< 0.9	0.91
CFI	< 0.9	0.927
RMSEA	0.05 ~ 0.08	0.066

의 기준은 0.4이상, 평균분산추출(AVE)값의 기준은 0.5이상일 때 수렴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Barclay et al., 1995).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독립변수의 검정에서 독립변수끼리 잘 범주화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X6(산업의 특수성)의 경우 강한 음의 값을 띄고 있는데, 이는 속한 산업이 특수하면 그 희소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위치가 수입기업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결제지연으

로 인한 결제리스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분 추출을 진행 할 때 고유값(Eigen value)의 기준이 1.0이상을 요하는데 변수가 총 9개임을 감안하여 몇 개의 변수가 고유값이 비교적 낮은 수치로 표현되었지만 흐름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총 9개의 변수 모두 성분 추출에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단일 항목으로 측정할 때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다시 말해 측정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야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Bae Sangpil, 2012). 구체적으로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한 값이 해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난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Gefen and Straub, 2005).

〈Table 6〉를 살펴보면 대각선으로 진하게 표시된 값이 AVE의 제곱근 값으로 이 AVE값과 인접하고 있는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6〉는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규모(X1)와 무역경험(X2) 사이에 다

소 높은 상관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레임 경험(X4)과 계약내용의 명확성(X5) 사이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신뢰성, 타당성, 상관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제지연으로 인한 결제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으로 기업요인, 계약요인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회귀계수를 활용해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은 회귀분석과 요인분석을 측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Fig. 3〉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Table 7〉은 구조방정식(SEM) 분석 결과에서 회귀분석 결과와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된 간명적합지수를 나타내는 CMIN/DF 지수가 1.749로 권장치 2.0이하이며, 증분적합지수를 나타내는

2) *(p<0.1), **(p<0.05), ***(p<0.01)
 3) X1(Enterprise Size), X2(Trade Experience), X3 (Transaction Duration), X4(Claim Frequency), X5(Contract Clearness), X6(Industry Uniqueness), X7(Market Uncertainty), X8(Economic Power), Y1(Payment Risk)
 *(p<0.1), **(p<0.05), ***(p<0.01)

Table 8. Empirical Findings for Hypothesized Relationship

	No.	Hypothesis	Result
Firm Factors	Hypothesis 1-1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 size and payment risk.	Reject
	Hypothesis 1-2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experience and payment risk.	Accept
	Hypothesis 1-3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 duration and payment risk.	Accept
Contract Factors	Hypothesis 2-1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laim frequency and payment risk.	Reject
	Hypothesis 2-2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clearness and payment risk.	Accept
External Factors	Hypothesis 3-1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uniqueness and payment risk.	Reject
	Hypothesis 3-2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uncertainty and payment risk.	Reject
	Hypothesis 3-3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ower and payment risk.	Reject

IFI(Incremental Fit Index) 지수는 0.929, TLI (Tucker-Lewis Index) 지수는 0.91,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는 0.927로 모두 권장치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근사오차 평균자승의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는 0.066으로 권장치 0.05 ~ 0.08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가설의 검증

선행연구의 분석과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8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 간에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Table 7>의 구조방정식(SE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8>과 같이 가설을 채택 여부를 정리하였다.

가설 1-1에서는 거래기업의 기업규모와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의 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해당변수에 대한 회귀계수(-0.063)의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

설 1-2는 거래기업의 무역경험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간 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무역경험에 대한 회귀계수는 -0.282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가설 1-3은 거래기업과의 거래지속기간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의 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0.215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 1-2은 채택되었다.

가설 2-1, 2-2는 계약 관련 요인과 결제리스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설 2-1 관련 독립변수는 클레임 경험이며, 해당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0.005이다. 설정된 가설과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가설은 기각된다. 가설 2-2는 거래기업과의 계약내용 명확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간 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귀계수는 -0.811이며 99% 신뢰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된다.

가설 3-1은 거래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수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간 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수이며(-0.302) 통계학적 유의성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가설은 기각된다. 실무자를 대상 인터뷰에 의하면 산업의 특수성이 높을수록 희소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협상력이 수입기업보다 높아지기 현상이 있다. 즉 특수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수입기업이 결제 관련 계약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결제리스크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내용이지만, 실증분석 회귀계수의 방향성과는 일치한다. 가설 3-2은 거래기업이 속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 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변수의 회귀계수는 -0.340이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다. 따라서 해당가설은 기각된다. 실무자 인터뷰에 의하면 시장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계약조건 중 핵심인 결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결제리스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실무자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 가설 3-3은 거래기업이 위치한 국가 경제력 수준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간 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변수에 대한 회귀계수(0.073)의 방향성과 통계학적 유의성을 감안할 때 해당가설은 기각된다.

V. 결론

전체적으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채택된 3가지의 가설과 기각된 나머지 가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거래기업의 무역경험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업은 다년간의 무역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쌓아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부서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처의 무역경험에 따른 해당기업의 업력과 부서 간 협력도,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전반적인 차이가 실제

결제지연으로 인한 결제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출기업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무역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거래기업과의 거래지속기간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국가 간의 유사한 문화는 상호간의 신뢰를 도와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처럼 높은 신뢰도는 해당기업을 다시, 그리고 오랫동안 찾게 되고 거래의 만족도 또한 높을 수 있다. 신뢰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은 거래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결제 방법을 선택하되 위험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이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품질,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구매율을 높이고, 장기고객으로 만든다면 해당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국가의 이미지가 될 것이다.

셋째, 거래기업과의 계약내용 명확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배송비와 포장비와 같은 부수적인 비용이 높을수록 거래당사자는 거래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더 많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제시기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준다면 외부적인 문제를 떠나 내부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부수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제품가격에 포함시킨 후 결제시기를 2회 이상 분할하는 방법으로 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거래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수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가설과 반대되지만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 이는 유의미한 기각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속해있는 산업이 특수할수록 수출기업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기업 입장에서 수출기업이 정한 내용에 대해 지체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리스크가 감소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거래기업이 속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해당기업의 결제리스크 사이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 또한 가설과 반대되지만 유의미한 기각이라고 판단된다. 실무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기업들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기업의 환경을 고려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에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기업의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가령 국내수출, 수입 통관내역을 바탕으로 해외기업의 상호,

제품군, 거래횟수, 나아가 클레임 횟수까지 조회할 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거래기업의 신용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담당자들은 무역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검토사항으로 참고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표본을 모집하는데 있어 수출기업이 수입기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수입기업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양측 설문을 통하여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요인들을 연구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Bae, Sang-pil(2012), *A Study on the Payment Risk Management of Korean Exporters with Non-L/C Based Transac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wangWoon University.
- Barclay, D., Thompson, R. and Higgins, C.(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yun, Sung-min(2017), *A Study on Export Risk of Korea Fishery Products to China by taking advantaging of FTA*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Cheon, Hee-young(2017), *The Effects of PPL Advertising and Country-of-Origin on Consumer Purchase Intention: A Study on Chinese Consumers' Behavior on Purchasing Korean Cosmetics* (Master's Thesis),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o, Yong-hyun(2011), "Experimental Study on the Relationship Type of Export Companies and Logistics Companies and the Performance of Overseas Logistics", *Korea Trade Review*, 36(2), 239-271.
- Choi, Jeong-ho and Je-hyun Lee(2002), "Experimental Study on Export Risk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in Korean Companies", *Management Studies*, 31(2), 314-337
- Choi, Yong-min(2010), *Direction and Countermeasures for Risk of Outstanding Export Receipts*, Korea Trade Institute

- Dong, Deng, Jong-hyuk Kim and Suk-chul Kim(2016), “A Study on the Medi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rbitration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The Korea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16(4), 89-109.
- Dong, Teng(2016), *Research on Resolution of Trade Dispute in Shandong Area in China Via Empiric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gi-do Province: Gachon University
- Gefen, D. and Straub, D.W.(2005), “A Practical Guide To Factorial Validity Using PLS-Graph : Tutorial And Annotated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6, 91-109.
- Ha, Sung-heun, Yoon-say Jeong and Hyun-hee Park(2016),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Analysis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Transformation into Direct Export”,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8(3), 181-201.
- Heo, Eun-sook(2002), “A Study on the Payment Terms of Korean Export Firm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3(1), 25-42.
- Jeong, Jin-eop(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Export and Entry to the U.S.*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 Joo, Se-hwan(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Trade Risk Management on the Export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Hyun-gyu and Seon-mi Jung(2017), “Effects of Corporate Sponsorship in Sports on Corporate Credi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7(6), 301-318.
- Kim, In-kyung(2005),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Export Payment Term of Export firms in Korea*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 Kim, Jung-eui(2018), *A Study on L/C Transaction Fees in Korea* (Master’s Thesis), Gyeonggi-do Province: Gachon University
- Kim, Sung-soo(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Import Payment Methods in Korean Small & Medium Trading Enterpris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ersity
- Koo, Jong-soon(1990), *An Empirical Study on the Export Risk Management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 Lee, Hee-sook(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Payment Risk Management of Export Firm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Dongguk University
- Lee, Oun-yeong and In-hyuk Ha(2012), “How Firms Manage Export Credit Risk in Open Account Trade?”, *Korea Trade Review*, 37(5), 169-192.
- Park, Se-hun(2008), *A Study on the Exporter’s Measures against Credit Risks i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Factoring, Forfaiting and Standby Credi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Park, Young-joon(2016), “A Study on the Payment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6(2), 465-487.
- Ren, Meng-lu, Hyuk-soo Cho, Xue Bai and Rong Fan(2018), “Determinants of Consuming Popular Culture Contents Based on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0(1), 297-318.
- Ryu, Won-woo(1997), *A Study on the Rational Selec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 in International Sal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Shin, Gun-jae(2005), “Experimental Study on Trade Claim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352-371.
- Song, Kyung-sook(2015),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in Accordance with Exchange of Payment Style in Foreign Trade in Korea* (Master’s Thesis), Chungcheong Nam-do: Chungwoon University
- Yao, Si-yuan(2015),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Problems of Payment System in Trade of China* (Master’s Thesis), Daegu: Daegu University
- Yeo, Mae-hye(2015), *A Study on Fraud in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Yoo, Won-woo(1997), *A Study on the Rational Choice of Trade Contract Condition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Zhou, Xiaofeng and Hyu-ksoo Cho(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verseas Purchases via Agents : Analyzing Chinese Consumers Purchases of Korean Cosmetic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9(3), 129-150.